한글문학극장 II

메밀꽃 필 무렵

공연일자 | 10.23(목) ~ 11.1(토)
공연시간 | 화~토 11:00 , 14:00
티켓가격 | 전석 2만원 / 단체관람 30%할인

원작 | 이효석 원작, 오태석 각색
연출 | 오태석
출연 | 국단 복화 단원
주최 | 국립박물관문학계단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지하철 이촌역)

단체 예약 | 전화 1544-5955

▶할인내역

대상	할인율	적용기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30%	상시
60세 이상 경로우대	50%	상시
극장용(재단)회원 국단복화 관극회원	40%	상시
보고도보고 할인 (국단복화 및 극장용 이전 공연 티켓 소지자)	50%	상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50%	10/29
초, 중, 고교, 대학교 단체	50%	상시

▶ 국립박물관문화계단 창립 10주년 기념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기념작

▶ 우리 현대단편문학의 최고의 수작으로 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을 한국연극계의 거장 오태석이 오늘의 무대 위에 다시 살아 숨 쉬게 한다.

●공연개요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1936년 작)이 새롭게 연극으로 태어난다. 강원도 장돌뱅이 허생원의 봉평 메밀꽃 밭 장정을 배경으로 하는 주인과 인연에 관한 이야기로, 연극계의 거장 오태석이 자연과 연출을 맡아 특유의 정서로 우리말과 몸짓, 정단과 노래 등을 사용해 우리식 연극으로 풀어낸다. 오태석 연출은 "각 하나하나 감옥 속 같이 보여주는 시장 연극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시의 연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전통연희적인 미러 효드들을 접목해 정적 장단 중점을 확자시켜 남성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시장이 거무로 쓰고 연기하는 관이은 달나귀 말 등 우리 옛 시골의 토속적인 정서를 대변할 독창적인 소품들을 무대에 등장시킬 계획이다.

●원작소개

풋풋같이 싱다 36세의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숱한 작품들을 분야대에 우리문학의 서정성을 드높인 이효석(李孝石,1907-1942), 그의 고향 강원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단편소설'메밀꽃 필 무렵(1936)'

1930년대 일제치하 한글말살정책이 강력하던 시절, 작가 이효석은 140여 편의 한글 소설과 시, 수필, 꽁트, 희곡, 평전, 번역서들을 남겼다. 그는 세상 모든 사물과의 대화를 통한 자신만의 표현방식에 몰입하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순수성이나 사랑이라는 주정적인 미학을 찾아 집필에 몰두했다.
그의 대표작이자 원단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메밀꽃 필 무렵'은 반남과 대비되, 그리움 비통이의 대수 등이 서정적인 자연과 융화되어 이데적인 세계로 승화된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식을 거만하고 한국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인간의 순박한 본성을 그려내는 주제 의식과 달밤의 메밀밭을 묘사한 시적인 문체가 뛰어나 우리 전통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작품이다.

●시놉시스

장돌뱅이 허생원은 봉평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신세를 한탄하며 술이나 한잔하기 위해 충주집에 들린 허생원은 충주댁이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와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샘스레 비감이 뒤틀려 동이의 목덜미를 부여잡고는 내동댕이치고 만다.
젊은 시장에도 봉평장에서 장돌뱅이를 하던 허생원은 수기 없는 청년으로 판는에 반해버린 숫생원의 딸 분이를 보고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물레방아간에서 울고 있는 분이를 보고, 하룻밤의 사랑인을 자연히 된다.
그 후, 허생원은 계속 장돌뱅이로 지내게 되었다. 어느 날 다음 장터로 이동을 하던 중, 혼자 가다렸던 강세 의장 일행 길을 나섰던 동이가 동행하게 되고, 외딴 처세 이생원은 동이가 제천집이 아버니의 친척 피동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설레 됐던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처럼 떠돈 장이다 라는 것을 보고는 화산에 자 동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함께 길을 향한다.

●작가소개 | 이효석

호는 가산. 강원도 평창 출생, 경성 제일보고를 거쳐 193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28년 단편 《도시와 유령》이 조선지광에 발표되면서 작가로 데뷔하였다. 1934년에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적인 탐미도 묘사한 작품 《돈》, 《장》을 발표했고, 1936년에 한국 문학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였다. 그의 문체는 세련된 언어, 풍부한어휘, 시적인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시적인 정서로 소설(산문문학)의 예술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2년 평양에서 급환으로 3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작곡, 연출 소개 | 오태석

6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쓰고 연출해 온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계 거장. 한국의 전통적 소재와 공연기법은 물론, 전 세계적 관극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 연극세계를 구축해 한국연극 전통성을 확립하느냐 고전 가미해온 성향을 평가받고 있다. 고교 교사이력 수학년 《 존웃이 씨》(1970)를 포함, 《마전가》(1984), 《부자유친》(1989) 등이 있으며, 국어,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세계적으로 20여편의 희곡집이 간행되었다.

●극단 복화

'오태석' 과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84년 창단해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최소의 거처를 지닌 '동인제 극단' 으로 '우리말 · 우리정경 · 우리소리'에 대한 관심으로 전국적 사투리를 채집하고 이를 연극언어로 발전시키는 작업과 전통춤 · 판소리 등 전통연희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독일·러국·일본·인도 등의 대형 극장에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1년는: 세계적인 공연축제인 '뉙더비라축제'에 참가, '메밀드셰퍼스'상을 받기도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단이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 뉴욕 라이아 극장에 초청되었다.

●출연 및 스태프

출연
김지미, 송영창, 정선주, 김문민, 이승배, 정주현, 윤한영, 정지영, 이승엽, 전승욱, 조원준, 임민지, 유재연, 김윤원, 배건일, 이준성, 김보라, 박화영

스태프
원작 | 이효석
극작연출 | 오태석
조명 | 이정희 음악 | 김은정 안무 | 강은자 의상 | 이승우
영상 | 박주근 기술 | 허동욱

■ 2014 한글문학극장 이벤트 ■

'메밀꽃 필 무렵'감상문 대회
*초, 중, 고 학생단체를 위한 이벤트

'메밀꽃 필 무렵' 공연 관람 후 감상문을 제출하면
우수작을 선정해,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각 학교, 학원 등 단체별 별도 접수 (문의: 1544-5955)

한글문화극장 III

백마강 달밤에

공연일자 | 10.23(목) ~ 11.2(일)
공연시간 | 화~토 19:30 , 일 15:00
티켓가격 | 전석 3만원

원작, 각색 | 오태석 작
연출 | 오태석
출연 | 극단 목화 단원
주최 |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극단 목화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서초구 이촌역)

▶할인내역

대상	할인율	적용기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상시
65세 이상 경로우대	50%	상시
극장 용(재)회원 극단 목화 관극회원	40%	상시
보고도 보고 할인 (극단목화 및 극장용 이전 공연 티켓 소지자)	30%	상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50%	10/29
초, 중, 고교, 대학교 단체	30%	상시

▶ 2014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극단목화 창립 30주년 기념

▶ 1993년 초연,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개관기념작으로 서울연극제 예술상, 비평가그룹상, 중앙문화대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수상작

●공연개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계 거장 오태석은 6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쓰고 연출해왔다. 우리의 전통적 소재와 공연기법은 물론, 세계적 타당한 연극 요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 연극세계를 구축해 타국연극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희곡들은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20여권이 넘는 희곡집이 간행되었고, 또한 여러 작품이 한계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백마강 달밤에〉는 오태석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1993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개관기념으로 초연되어 그때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충청도 지역 은산별신제를 소재로 괴팍과 현생을 넘나드는 판타지적인 구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오태석 특유의 유머가 담겨있다. 작품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소개한다.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계시지설 때 좌 통합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분야 칸수선다 이거야. 칸수시는 동안에 그 분야 오랑다 가는는 공부 대단다 말이요. 그러면 그럼 때 예를 들어서, 부자은 죽은 남편에게 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저희의 얘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도 좀 좋아가 가지고 '당신은 저금 어떻게 지내시요' 하고 싶은 게 작품의 시작이지.'
우리전통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의 소통과 화해, 용서를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역주 크다. 식물건을 넘나드는 재미와 다툼이 관객 모두의 만남을 기원하는 오태석 연극 속 삶는 굿판을 만날 수 있다.

●서늘시스

충청남도 신탄리(仙炭里).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대동제(大同祭)가 열린다. 올해는 마을 어귀 옛 백제 성터 자리에서 백제정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다. 나당(羅唐) 연합군한테 멸망하기 불상당한 원혼들을 위로해 준으로서 마을에 서낙(西落)한 것과 정이(鼎利)가 들어 찾아서 막아주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 대동굿을 주재해오던 할멈 무당이 굿을 예절 없두고서 노쇠하여 몸져눕게 된다. 마을 유지들은 할멈의 수양딸 '쌍카(순단)'이가 대신 받아 제를 지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할멈은 꿈에서 순단이의 전생이 '백제 의자왕'을 비롯 신라 장군 '김유신'라는 것을 보고, 순단이가 이 제(祭)를 주재할 수 없다며 마을에서 쫓아낸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마 정 마을 박수무당 명랑이를 데리와 대동굿을 벌이는데, 순단이에게 의자왕을 비롯 궁화의 혼이 내린다. 금화와 명랑이는 의자왕을 찾아 화해(사랑)하기 위해 명부로 떠나는데...

●작,연출 소개 _ 오태석

6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쓰고 연출해 온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계 거장. 한국적 전통적 소재와 공연기법은 물론, 전 세계적 연극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자적 연극세계를 구축해 한국연극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뎐 제2(1970)를 포함, 〈자정가〉(1984), 〈부자유친〉(1989) 등이 있으며, 국어,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세계적으로 20여권의 희곡집 간행되었다.

●극단 목화

'오태석' 과 그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84년 창단해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최소의 거처를 지닌 '동인제 극단' 으로 '우리말 -우리물정 - 우리소리'에 대한 관심으로 전국적 사투리를 채집하고 이를 연극언어로 발전시키는 작업과 전통춤 - 민소리 등 전통연희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독일·러시아·일본·인도 등의 대형 극장에서 한국의 공연 문법을 알리는데 노력해오 있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공연존재인 '에딘버러페스티벌'에 참가, '에딘드랜틀스상'을 받기도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단이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 뉴욕 라데이 극장에 초청되었다.

●출연 및 스태프

출연
정진각, 송영창, 정연주, 김준범, 이승혜, 정주현, 윤범열, 정지영, 이승엽, 전수옥, 조원준, 임민지, 유재연, 김보원, 배연일, 이준엽, 김보라, 박화영

스태프
작,연출 오태석 | 조명 이경분 | 의상 이승무 | 기술 바동욱

■ 2014 한글문학극장 이벤트 ■

'백마강 달밤에' 해피 이벤트

'백마강 달밤에' 공연을 관람한 후 극장 용 홈페이지 www.theateryong.or.kr 또는
인터파크 예매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면,
총 6명을 선정해 극장 용 기획공연 초대권을 제공합니다.